



전주대,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회 학술 세미나

전주대학교는 제2회 전국대학 보험관련전공 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금융보험학과 이소미, 양가영, 조서현, 최다현 등이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학술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생 보험 학술대회로 대학생들의 보험학 연구를 장려하고 한국 보험산업의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대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주대를 비롯해 대구대, 동서대, 동의대, 목포대, 상명대, 서원대, 순천향대 등 전국 8개 대학 교수와 학생이 참여, 금융감독원장상, 생명보험협회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 보험개발원장상, 보험연구원장상, 한국보험학회장상,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상, 보험연수원장을 각각 한 팀씩 선발 시상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 어르신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29일 농업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과 함께 '농업인행복콜센터'에 등록된 완주군 이서면에 거주하는 돌봄대상 어르신 20여 가구에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증가하는 취약 농업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밭짓 등 정서적 위로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송영욱 조합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촌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어르신들의 의료요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홀몸어르신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신일교회,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예수병원은 전주신일교회 유정인 담임목사가 예수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5백만 원을 후원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달식에서 유정인 담임목사는 "23년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의료를 통한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병원에 감사를 드리며 전주신일교회는 다양한 첨단장비 도입과 전문 입원센터 개설로 지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전 교인의 정성을 담은 발전기금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철승 병원장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 주시는 전주신일교회는 예수병원의 든든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기탁해 예수병원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은 예수병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라이온스클럽, 금암2동 어르신께 설렁탕 전달

전주라이온스클럽(회장 윤학용)은 지난 29일 금암2동 주민센터(동장 송상용)를 방문해 저소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70여명에게 설렁탕을 전달했다. 전주라이온스클럽은 3년째 설렁탕지원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폐지되는 어르신 리어카지원 봉사, 김장김치지원 봉사, 수해복구 지원 활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께 가져가 드실 수 있도록 모두 개별 포장해 전달했다. /김윤성 기자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이윤자 전주시 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지원·권익증진 기여 공로

전주시의회 이윤자(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에서 조례 제·개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가 주관해 기초·광역의회 의원 대상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을 우수하게 수행한 의원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이윤자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정신질환자 및 가족,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갖고 현장 중심 의견수렴 절차를 토대로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전주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사업을 정신질환자 지역 사회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활동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 증가,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의 순기능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만든 조례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지방자치 위상 기여 공로 인정

이병관 전주 대자이병원장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표창장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선정한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을 시·군의회별로 수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전북 지방자치발전 유공자에 선정된 이병관 대자이병원 원장에 표창 수여식을 갖고 그 공로와 의미를 기렸다. 이병관 대자이병원 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등 주민중심의 자치구현에 노력하며, 전북 지방자치 위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동화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위상 제고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는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시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남원지역자활센터 착한가게 단체가입식 가져

남원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남원지역자활센터 착한가게 단체가입식을 가졌다. 이번 가입식에 참여한 착한가게는 ▲베트남 골목 식당(카페홍(향교동) ▲파스타(피자 전문점 미테리(도룡동) ▲커피전문점 매머드(남원의료원) 등 3개소 등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후원이나 기부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기부사업에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되돌려준다는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남원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단은 2020년 9월 베트남 골목 식당 1호점을 시작으로 2021년에 2호·3호점인 미테리와 매머드를 개점해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사업 중 하나로, 매월 3만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된다. 임충근 지역자활센터장은 "도움을 받기만 했던 참여자들이 기부사업에 동참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의회 김영호 운영위원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지난 28일 고창군의회 김영호 운영위원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로부터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고, 김형열 심원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전라북도시군협의회(회장 강동화)로부터 '포용력'을 받았다. 김영호 위원장은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에 왔으며 특히 군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참여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형열 심원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나아가 전라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다. 김영호 운영위원장은 "매우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영광스럽고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 대표 가정간편식 아이디어 대회... '황포묵 냉파스타' 대상

전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지난달 29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전북대 김미나경민교수(식품영양학과)가 전주시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전주음식마켓 개발 과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식품업 분야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식품영양학 관련 전공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전주의 대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주 10대를 활용한 황포묵 냉파스타 HMR개발 아이디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김미나경민교수는 "국내 식품영양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에서 전주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전국 학생들의 특색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전주의 대표 음식도 간편식으로 개발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가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영양 관련 학회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연구의 촉진,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국민영양보건의 향상 및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다. 현재 2000여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산업심포지엄과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창경찰, 교통사고 예방 활동 나서

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이른 일몰시간으로 인해 농기계, 보행자 사고 증가가 우려되어 농기계, 오토바이, 보행자 등을 대상으로 경광등 및 야광 반사지 부착,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여 농기계 이용과 보행자들의 도로변 이동이 많아지면서 다가 겨울철 이른 일몰 시간대에 발생하는 농기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 반사지 부착하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 운행 자제, 도랑가에 방지 안 하기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경광등과 야광 반사지를 농기계 등에 부착하고 마을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익 서장은 "농기계,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일반 승용 차량에 비해 더 높은 만큼 농기계의 야간 운행을 자제하고, 특히 보행자들은 밝은 옷 착용과 일몰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일을 일찍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1년 11월 29일 (월) 5기 (주)전주매일 2021-11-29 전주 우.우.우 7기대교 22 4층 (서노송농)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원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82-388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16-1227	진안지사 483-3084
사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82-0955	정읍지사 538-3787
호서지사 010-6945-995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382-6157
	고산지사 010-6789-0088	무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30-4258
	익산지사 668-9923	고창지사 6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